

초상이나 사진 등에 의한 명예훼손

초상, 사진, 만화 등은 명예훼손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특정단체를 비방하거나 조롱하게 되는 명예훼손적 기사와 관계가 있는 잘못된 초상을 공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된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사례 1>

훼링톤과 스타사(Farington v. Star Co.)의 사건은, 스타지가 유괴사건의 범인을 보도할 때 범인의 사진대신에 범인과 성명이 같은 원고측의 초상을 사용하면서 비롯된 사건이다. 원고측은 자신의 초상이 잘못 사용됨으로써 사람들이 마치 자신을 범인으로 오인케 할 가능성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명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뉴욕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정은 스타사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손해배상을 지불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사례 2>

뉴비와 타임즈-미로사(Newby v. Times-Mirror Co.)의 사건은 신문기사와 만화가 개인의 명예 훼손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발행되는 타임즈-미로지는 원고인 뉴비잡지사를 위선적인 인물로 묘사하는 기사를 싣고 이와 관련된 풍자만화를 실었다. 이에 대해 뉴비잡지사는 만화가 자신을 지나치게 위선적인 인물로 묘사하여 비방하고 있고 또한 관련 기사가 왜곡되어 있으므로 이를 정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기 했다. 이 사건을 다룬 캘리포니아 법정은 원고에 대한 이미지를 왜곡하는 만화는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타임즈-미로사는 이에 대해 정정보도를 해주어야 한다고 원고측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사례 3>

스니블리와 레코드출판사(Snively v. Record Pub. Co.)의 사건은 캘리포니아시 경찰서장을 풍자만화로 모욕함으로써 소송이 제기된 사례이다. 만화의 내용은 경찰서장이 한 손을 머리위에 올려놓고 『여보세요』 하면서 손짓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고, 바른 한 손은 그의 등뒤로 손을 뻗쳐 지장이 끝에 묶여져 있는 돈을 가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 만화가 공표되자 경찰서장은 자신을 모욕하고 있는 만화를 게재한 레코드출판사를 걸어 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일심에서 원고측에 피해를 보상하도록 결정했으나 항소심에 올라가 기술적인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파기되고 말았다.

<사례 4>

볼과 이브닝 아메리칸사(Ball v. Evening American Pub.)의 사건은 사진을 임의로 사용하여 문제가 된 사례이다. 이브닝 · 아메리칸지는 기사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본인의 동의도 없이 사진을 임의로 게재하여 공표하자 이에 대해 볼 씨는 독자들이 그 기사에서 언급된 사람과 자신을 동일인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브닝 · 아메리칸지에 게재된 사진은 기사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고 분명히 잘못된 사진이기 때문에 독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것이 원고측의 주장이었다. 이 사건을 다룬 일리노이주 법정은 개인의 사진을 임의로 게재함으로써 이브닝 · 아메리칸사는 볼 씨의 사생활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진에 대한 권리를 위반하고 있다고 판시하고 손해배상금을 물도록 결정했다. 이에 대해 피고측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원고측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사례 5>

펙크와 트리뷴사(Peck v. Tribune Co.)의 사건은 특허품에 관한 잘못된 선전문구와 함께 개인의 사진이 잘못 사용된 사례이다. 이 사례는 본질적 명예훼손(libel per se)의 대표적 사례로 다루어지고 있다. 트리뷴지는 듀피스 · 퓨어 · 몰트 · 위스키(Duff's Pure Malt Whisky)의 성능을 자랑하기 위해 광고문안과 함께 슈만(A. Schuman) 부인의 이름으로 원고인 펙크 씨의 사진을 게재했다. 광고문안은 그녀가 이 위스키의 계속적인 애용자이며 현재 그녀는 간호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적고 있었다. 이 사건은 처음에 1 심에서 피고측의 과실은 인정하나 명예에 대한 것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측에 패소결정을 내리고 2 심에서 까지 원고측에 패소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 사건은 미연방최고재판소가 원고에 대한 본질적 명예훼손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사건을 반송하였다. 미연방최고재판소는 개인의 사진이 광고에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은 본질적 명예훼손을 범하고 있으며, 또한 원고의

사진이 광고에 계속 사용되고 있는 한 피고는 과실을 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의 사진을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명예훼손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1 심과 2 심에서 원고측에 패소판결을 내린 결정을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사례 6>

하트와 우드베리 피부병연구소(Hart v. Woodbury Dermatological Institute)의 사건은 관계없는 사람의 사진이 피부병 선전에 관련되어 사용됨으로써 제기된 사례이다. 뉴욕에 있는 우드베리 피부병연구소는 동 연구소의 피부병연구에 대한 선전문을 게재하면서 하트 씨의 사진을 피부병 연구소의 실험전과 후의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하였다. 사진과 함께 게시된 선전문은 연구결과를 알리기 위한 것이었으나 잘못된 문구조성이었다. 이에 대해 하트 씨는 자신의 사진이 잘못 사용된 데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제소하자 법정은 원고의 사진을 동의없이 사용한 것은 잘못된 선전문과 함께 모두 원고의 명예훼손을 범하고 있다고 판시하고 피고측은 원고에게 배상할 것을 명했다.

<사례 7>

모리슨과 스미스(Morrison v. Smith)의 사건은 관계기사와 함께 원고의 사진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명예훼손을 야기하게 되었던 사례이다. 스미스 씨는 음란한 타이피스트의 사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엮은 책을 팔기 위해 광고를 하면서 광고문안과 함께 책 속의 주인공을 묘사하기 위해 모리슨양의 사진을 함께 게재하였다. 이 사진은 주인공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문제 많은 소녀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에 대해 모리슨양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처음에 1 심에서는 피고측인 스미스 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모리슨양이 1 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자 항소심은 오히려 모리슨양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은 원고의 사진이 공표됨으로 해서 그녀의 인상이 일반독자들에게 왜곡되게 전달될 수 있다고 보기때문에 1 심판결을 번복하였다. 따라서 모리슨양의 명예훼손에 대해 이유있다고 보고 새로운 공판을 열도록 명했다.

<사례 8>

패브시히와 뉴잉글랜드생명보험회사(Pavesich v. New England Life Ins. Co.)간의 사건은 원고인 패브시히씨의 사진을 동의없이 상업적 목적에 사용하여 제기된 사례이다. 뉴잉글랜드생명보험회사는 생명보험을 권유하기 위해 여러가지 이익이 있다는 광고문안과 함께 패브시히씨의 사진을 게재하고 마치 그가 생명보험으로 여러가지 혜택을 받는 것처럼 묘사하여 광고문을 게재하였다. 패브시히씨는 이러한 광고문이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명예를 훼손하였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정은 이러한 사진의 사용은 비록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지는 않았지만 프라이버시를 침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은 그로 하여금 모욕적인 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례 9>

풍자만화의 사용은 비록 그것이 특정 개인의 감정을 자극할 수도 있겠으나 본질적으로 모욕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맥널시와 프레스출판사(McNulty v. Press Pub. Co.)간의 사건은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되는 사례로서 주목을 끈다. 맥널시와 프레스출판사 간의 사건은 웹스터(H. T. Webste.)씨가 맥널시씨를 「착한 일을 한 소년」으로 묘사한 풍자만화를 그려 자기 회사의 출판물을 선전하기 위해 공표하였다. 그러나 맥널시씨는 이 만화가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법정은 비록 이 풍자만화가 모욕적인 것은 아니나, 원고측의 동의없이 상업적 목적을 위해 임의로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하였다.

<사례 10>

힐맨과 스타출판사(Hillman v. Star Pub. Co.)간의 사건은 특정사건과 관련된 사람의 딸의 사진을 게재함으로써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소송을 다룬 사례이다. 스타씨는 사기죄로 고발당한 힐맨과 그의 동료 3명에 대한 구속영장발부 소식과 아울러 힐맨의 가족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였다. 스타씨는 힐맨의 딸 사진을 게재하면서 힐맨 가족의 상황을 상세히 보도하였다. 힐맨의 딸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그의 후견인을 통해 자신의 프라이버시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본 사건과 관련이 없는 자신의 사진이 게재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처음에 이 사건을 다룬 워싱턴주 지방법원은 이 소송사건에 대해 관계기사가 딸을 모욕하거나 경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소송을 각하했다. 힐맨의 딸은 이에 대해 소송을 하자 워싱턴 최고재판소는 그러한 상해에 대한 원고의 구제를 요구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보고 문제의 사진이 가족들의 단체사진의

일부가 보도된 것이기 때문에 범죄수사와 관련된 무고한 사람의 사진이게 재된 것은 어느 정도 잘못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것은 한지 보도기자의 졸속행위로 볼 수 있을 뿐이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보도기자의 윤리성을 제고하고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된 사례가 되었다.